

올해 들어 가장 큰 뉴스거리는 역시 부동산 문제인 것 같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신문 방송을 뒤 흔들다가 잠시 잠잠해지는 것 같더니 며칠 전부터는 지자체의 재산세 탄력세를 조정해 놓고 또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20곳이 재산세를 10%에서 50%를 감면했는데, 강남구의 경우 50%를 낮추어 주었고 송파구는 이에 뒤질세라 40%, 양천구와 서초구도 30%를 감면하였다. 이렇게 각 구별로 재산세 감면비율이 다르다 보니 가격이 조금 낮은 아파트가 오히려 더 많은 재산세를 내는 경우가 생겨서 조세역전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러다 보니 세금을 상대적으로 더 내는 사람은 반발감이 생기기 마련이고 정부는 정부대로 조세를 통해서 부동산을 잡겠다는 전략에 자질이 생기기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탄력세율의 적용 폭을 줄이는 등 규제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기초단체들은 재량권 축소하려 항의한다는 것이다.

조세형평을 주장하는 정부와 재량권 유지를 주장하는 자치단체 중 어느 쪽 주장이 맞을까? 단지 탄력세율 축소 문제 자체에만 시각을 한정한다면 양 쪽 주장 모두 일리가 있는 셈이다. 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특성을 중앙정부보다 더 잘 파악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불자 세상보기

강삼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말 많은 조세정책

세율을 조정한 것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강남구와 같은 일부 부자 동네를 때문에 조세형평성이란 큰 줄기가 흔들렸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참여정부에서의 부동산 급등의 원인과 조세정책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의욕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추진과 동시에 수십 곳의 혁신도시 등을 건설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천문학적인 보상금이 배부되었다.

그런데 공공토목도 이 시기는 국제적인 저금리 현상이 나타났던 때이었기 때문에 시중에 풀린

부동자금에 마땅한 투자대상을 찾지 못하고 부동산에 집중되고, 정부의 주장대로 일부 투기세력도 가세하면서 결국은 부동산 급등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부동산 급등의 여러 원인 중 하나인 투기세력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신들에게는 면죄부를 부여하였고 투기세력에 대한 징벌로써 재산세인상과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게 된 것이다.

과연 얼마나 많은 투기세력이 존재하고 그로 인한 부동산 인상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통계가 없어 알 수 없지만 왜 하필이면 참여정부가 들어서 이렇게 문제가 되었을까? 자본주의라는 것이 본래 모든 사람이 이익을 추구하면서 노력하면 아담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 즉 시장에 의해서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얻게 되는 제재란 것이 역사적으로 검증된 사실이다.

정부가 할 일은 시장에 존재하는 여러 경제주체들의 행동방식을 이해하면서 국가경제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만약 정부가 국도개발 계획 중 최우선순위에 있는 것을 먼저 추진하고 심수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는 다음 정부로 미루는 잠을 잘 때 발뺌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결국 부동산 가격은 2002년 말부터 여러 번 급등하기 시작했고 정부는 그 때마다 투기세력에 증오감을 불태우며 이를 압박하기 위한 조세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과도한 조세부과는 당연히 시장에 왜곡현상을 불러일으킨다. 급변에 발생한 조세역전현상도 결국은 이로 인한 부작용 중 하나일 뿐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조세정책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해도 정부당국자는 듣지 않는 것 같다. 왜 이렇게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까?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 외에도 귀를 열 줄 아는 진정한 관리자의 모습을 기대한다.

불자의 눈

남부지역을 휩쓴 태풍 애니위아가 남긴 상처가 너무도 크다. 화마로 은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낙산사는 산불로 사라진 숲 탓에 이번 폭우로 축대까지 무너져 내린 모습은 더욱 가슴을 쓰리게 한다. 올해 첫 태풍에 전남 곡성 도립사, 해인사 산내 암자, 부산 범어사, 통영 용화사, 남해 화방동산, 울산 보덕암 등 수많은 사찰들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은 장마와 또 닥쳐올 태풍을 생각하면 긴장을 늦추기엔 이르다. 주로 산중에 전통사찰이 많은 불교계는 산불이나 폭우 등 천재지변에 대비한 체계적인 방재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 그러나 매년 여름 물난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여전히 무대 책임 채로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다. '소 잃고도 외양간 안고치기'라는 새로운 말을 만들어 내야 할 것 같다. 불교계 대표종단인 조계종의 대응을 보면 참 답답하기 그지없다. 매년 반복되는 재난이지만 아직도 재난에 대비하는

재난예방 시스템이 먼저

부서나 시스템 가동이 잘 안되고 있는 듯하다. 정부도 무대책이기는 마찬가지다. 소방방재청은 전국의 수해 피해를 집계할 때 소나 돼지 창고 등 사소한 것까지도 파악하지만, 민초의 정신이 담긴 문화재 피해는 항목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대책이 없기는 문화재청도 마찬가지다. 무엇보다도 서둘러야 할 것은 사전의 방재시스템 구축이다. '소 잃고도 외양간 안고치기'의 수준에서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치기'로 두 단계의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 수재와 화재 등으로부터 소중한 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점검 시스템을 하루 빨리 완비해야 한다.

매년 수해피해의 심각성을 말하면 떠들것이나 아니라 필요한 만큼 인력과 예산이 배정되어야 한다.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총무원에서 전달 TF부서를 만들어 신속하게 피해사태를 수집하고 소방방재청과 문화재청과 합동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낙산사 화재와 이번 태풍의 피해를 거처고도 이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럴때마다 한탄만 하고 말 것인가. 정말 소중한 해야 할 것들을 소홀히 하는 정부와 불교계가 실망스럽다.

성대용(건국대 철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학생 물리는 산골중학교

천 개의 문장을 원들 뜻은 모르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 경을 많이 읽다 해도 뜻을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 한 뜻이라도 듣고 행하여 제도될만 같지 못하다. 한 글귀를 알더라도 행하면 도를 얻는다. <법구비유경>

7월 14일 모 언론에 도시 학생들이 물리는 산골 중학교가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농촌에, 그것도 교육 때문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화제의 이 학교는 전북 완주군 화산면 화산 중학교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학생 감소로 폐교 위기에 몰렸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은 폐교 위기 당시보다 5배 가량 학생수가 늘어났으며, 인근 전주와 익산은 물론이고 수도권과 영남에서도 학생들이 찾아오는 학교가 됐다.

그 이유는 전인교육과 특화교육에 있다. 학생들은 매일 아침 운동장을 두 바퀴 돌고 명상을 한 뒤 수업을 시작한다. 학생 모두가 피아노건 태권도건 특기 한 가지는 익혀야 한다. 보통 약기 하나쯤은 능숙하게 다룬다고 한다. 학생들은 교사나 방문객을 만날 때마다 하루 몇 차례건 고개 숙여 인사한다.

수업은 영어와 수학수업의 비중을 늘리고 제2외국어를 가르치는 등 심화학습에 초점을 맞췄다. 교사와 학생들이 하나로 호흡하면서 높은 학습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늘 환경을 탓한다. 하지만 이런 얘기를 듣고 있노라니 사람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새삼 느끼게 된다. 이 학교가 이렇게 변하기까지는 교사와 학교 관계자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을 것이다. 교육은, 세상은 이렇게 '의지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바뀐다.

한명우(취재부 차장)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붓다뉴스(www.buddhanews.com) 독자여론 조사

"선의취득이라도 이미타극락회상도 돌려줘야" 압도적

1994년 도난당한 백양사 이미타극락회상도가 한국불교미술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백양사의 반환 요구에 대해 박물관측은 장물인 줄 알 수 없었다는 논리로 선의취득을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선을 달리는 가운데, 붓다뉴스(www.buddhanews.com)는 6월 28일부터 7월 11일까지 2주에 걸쳐 박물관이 이미타극락회상도를 돌려줘야 할 것인지를 묻는 독자여론조사를 시행했다.

박물관측이 이미타극락회상도를 돌려줘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89명의 응답자 중 83%인 74명이 "선의취득규정을 성문화화에 적용해선 안 된다. 돌려줘야 한다"고 답했다. 나머지 17%인 15명은 "선의취득이 입증되면 돌려줄 필요 없다"는 입장을 지지했다.

'실행'이라는 대화명의 독자는 "반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난당한 불화가 유통된 경유가 문제"라며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강조했다. 또 '아침이슬'이라는 독자는 "선의취득이 아니면 처벌을 받아야 함은 물론이고, 선의취득이라 해도 반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4년 도난당한 백양사 이미타극락회상도를 한국불교미술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음이 확인돼 백양사측이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물관측은 선의취득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미타극락회상도를 돌려줘야 할까요?

Table with 2 columns: Question, Percentage. 1. 선의취득이 입증되면 돌려줄 필요 없다. 15명 (17%) 2. 선의취득규정을 성문화화에 적용해선 안 된다. 돌려줘야 한다. 74명 (83%)

독자여론의 의견을 e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2004-8243 (담당: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사미의제 지도감독에 만전

현대불교신문 586호 4면의 '의제통일' 관련기사에서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 상임감독 모 스님이 지난 5월 기본교육기관인 모 종합대학 구내에서 사미의제를 하지 않는 예비승을 적발했지만 아직도 교육원의 사후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해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밝힙니다.

기사를 본 일부 스님들은 교육원이 학인들의 사미의제 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조계종 교육원은 매년 학인들에 대한 사미의제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행자의 기본인 승가의 위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호법부와 공동으로 사미의제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원이 상시적으로 지도감독에 나서고 있는 것만 행정적 절차와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적발자에 대한 처리는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 지도감독 결과를 집계 중이며 조만간 적발된 학인 스님들에 대한 일괄 조처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원은 법계에 따른 승가의 위의를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창훈(조계종 교육원 교육팀장)

'연대' 민영 심민섭



천안통.천이통.의통

양수영 원장님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린분으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병의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합니다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환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병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는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박작, 조울증, 강박중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기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물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다니고도 못 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전생치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사주명리(사주팔자)이란 무엇인가? 사주팔자(四柱八字)를 읽어 볼 수 있는 비법(秘法)이 있다.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부록

"영가천도의 중요성"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여려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모범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이영가의 천도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천축, 연속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모범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실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계의 상장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책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계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의 토질로 변화시키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강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전화:031334-9490, 334-9519